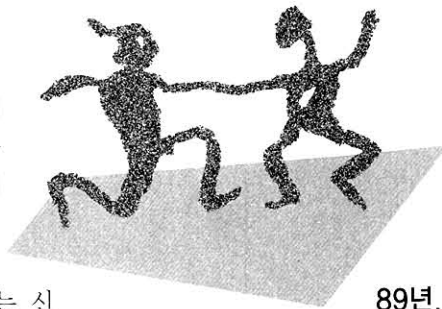


4·3 그리고 자기검열

87년 6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는 그 무렵 제주 시에서 버스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읍 소재지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

출내기 교사였다. 퇴근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버스에 몸을 실어 제주 시로 향했다. 그 무렵 오후 6시가 되면 제주시의 중심인 중앙로는 사방팔방에서 밀려드는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 순식간에 도로가 점거되고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옆 사람과 어깨를 걸어 '민주쟁취 독재타도'를 삼이 들썩일 정도로 외쳐댔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한 가운데서 느낀 해방감이라니!

6월항쟁에 힘입어 제주에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라는 문화예술운동단체가 결성되고, 나는 그 산하의 '놀이패 한라산'이라는 광대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89년이 되자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날밤을 새는 토론을 끊임없이 가졌다. 결국 고향 선배인 소설가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 이후 함부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4·3항쟁을 광대들마저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하고, 4·3항쟁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작품 준비에 들어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리석으리만치 순진했고 지나치리만큼 비장했다. 6월항쟁 이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감출게 없다는 생각과 4·3항쟁을 본격적



으로 다루려면 당시 '산사람'들의 결의와 각오 이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맞물리면서 마치 제동장치가 풀린 화물차처럼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았다.

89년, 4·3항쟁 최초 공연

문단의 말석에 이름을 내걸었기에 창작단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역할뿐만 아니라 연출 경험이 있는 연출자라는 이유로 책임 연출까지 떠맡게 되었다. 반복되는 수정과 연습 끝에 우리는 마침내 4·3항쟁을 다룬 최초의 공연 작품 '4월극 한라산'을 올리게 되었다. 그것도 시민회관이라는 공공건물에서 말이다. 그 장소에는 공연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4·3항쟁을 주제로 한 시화전이 동시에 전시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관객은 소위 운동권이거나 그 주변 사람들이었고 그 주위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요소요소에 틀어박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가 하면 시화전에 걸린 내용들을 낱낱이 베끼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었다. 아무튼 이틀간의 공연은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문제는 공연 다음날이었다. 학교에서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장실로 급히 오라는 전갈이 왔다.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들어가 보니 교장선생님 곁에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건장한 사내들이 앉아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조사할 게 있으니 같이 가자'는

그네들과 '나는 공무원이니 업무시간에는 나갈 수 없다. 데려가려면 영장을 제시하라'는 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전에 교장선생님은 얼른 그네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업은 염려 말고 얼른 가라는 것이다.

공연 후 공간기관에서 조사받아

나에 대한 조사는 '김수열, 왔구나. 나머지 조사 받는 놈들은 다 내보네'라는 끔찍한 말로 시작되었다. '현기영 알아? 순이삼촌 알아? 김명식 알아? 4·3 조사 어디 다녔어? 누구 만났어?' 말이 조사이지 그네들이 내지르는 고탐과 휘두르는 삿대질, 간간이 책상을 내리치는 주먹질에 나는 점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인민항쟁가,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다. 결국 나는 며칠 동안 조사를 받고 마지막 날은 과장인지 국장인지 하는 지체 높은 양반 앞에 불려가 '4·3 사태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남로당이 남한을 전복하기 위해 저지른 폭동이며 죽은 사람은 모두 빨갱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했고 '다시 한번 4·3항쟁 운운하는 날엔 교사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끝장'이라는 으름장과 함께 '여기서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협박을 뒤로 하고 집으로 올 수 있었다. 돌아오면서 나는 별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고 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밤잠을 못 이루고 뒤적었던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 무렵 공연을 함께 했던 단원들, 시를 썼던 친구들도 거의 빠짐없이 불려갔다.

해마다 4월이 오면 4·3을 다룬 공연을 하고 시나 부랭이를 끄적이지만 시나브로 나는 나를 준엄하게 검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미리 준비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짝죽거렸던 것이다.

해마다 4월엔 준엄한 자기검열

올 4월에 있었던 일이다. 오래 전에 내가 연출했던 4·3 공연 '4월꽃 꽃놀림'을 금년에 극단 단원들이 새롭게 각색하고 연출하여 일본 동경에서 공연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애당초 이번 작품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학교 일정도 비울 수 없고 해서 일본행은 염두에 두

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공연 일정 중에 조총련 학교에 들어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조총련은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그 곳에 들어가려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는데 결과는 '접촉



불가'였다. 그 이유인즉 4·3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혹시 북한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4·3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 결과물로 진상보고서가 정부 차원에서 작성이 되었으며 4·3은 양민학살이었다는 입장이 보고서에 들어있는데도 말이다. 공연을 며칠 앞두고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을 따를 것인지... 결국 공연 참가자들은 오랜 숙의 끝에 강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나는 지레 두려웠다. 내가 생각하기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선 것이다. 아무튼 일본으로 건너간 단원들은 조총련 학교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그야말로 무사히 돌아왔고 지금껏 아무 문제가 없다. 아마 조총련 학교에서 공연한 최초의 남측 공연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언제부턴가 4월만 다가오면 나는 심한 편두통에 시달리곤 한다. 공연을 준비하고 작품을 쓰는 데서 오는 버거움 때문이 아니다. 아직도 4·3에 대한 자기검열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수열

1959 제주출생

1982 실천문학으로 등단

시집 『어디에선들 어떠랴』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 산문집 『김수열의 책읽기』